



벽화에 장애학생의 꿈을 담다

광주선우학교, 벽화 커팅식 개최...한승희 작가와 완성 손현주 교장 “긍정적 행동 형성위해 안정적 환경 조성”

광주선우학교가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학생회장, 살레시오고 한문노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왕자의 꿈을 담은 벽화’ 커팅식을 지난 19일 개최했다.

20일 광주선우학교에 따르면 ‘어린왕자의 꿈을 담은 벽화’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및 긍정적인 행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광주선우학교는 여름방학 동안 휴겔러리 한승희 작가와 함께 작업해 ‘어린왕자의 꿈을 담은 벽화’를 완성했다.

그동안 광주선우학교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위해 학교 환경을 정비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

해 왔다. 또 학생들을 5명 미만 소그룹으로 나눠 아로마테라피, 연극 수업, 원예수업 등을 지원해 왔고,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문제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광주선우학교 손현주 교장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광주선우학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오고 싶은 즐거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강진군보건소,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독거노인·만성질환자·거동불편자 등 건강취약 계층 대상

강진군보건소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건강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4명을 비롯하여 읍·면 보건기관 업무담당자가 폭염취약계층 2,984가구에 게 비대면(전화상담, 문자발송) 및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태확인 및 여름철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온열질환의 증상 및 대처요령, 폭염대비 건강관리수칙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건강관리수칙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 섭취, 폭염이 집중되는 시간대(12시~17시) 장시간 외출 자제, 야외활동 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등이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년층과 만성질환자 경우 어지러움과 탈진, 두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동구, 복지시설에 무료 방역 서비스

‘방역 전문업체’ 세븐원 광전지사, 아동·장애시설 32개소에 실시

광주 동구는 친환경 살균소독 전문업체인 세븐원 광주전남지사의 지원으로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무료방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방역서비스는 동구의회 박진원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동구 사회복지시설 방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관내 방역업체의 흔쾌한 도움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역은 업체에서 시설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지난 18일 장애인복지관 방역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방역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은 아동시설 22개소, 장애인시설 10개소 등 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살균·멸균 소독은 물론 장난감·모래, 놀이기구, 재활기구 등 공간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이뤄진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시설의 자체 방역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차에 방역업체에서 흔쾌히 무료방역을 실시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여수시 월호동 치매안심마을 현판식 열어

최근 주민자치센터서 협력기관장·기억지킴이·마을주민 참석

여수시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월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협력기관장, 기억지킴이,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여수시 치매안심마을 제4호로 지정된 월호동은 지난 7월 협약식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선별검사 전수조사, 치매환자와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파트

너 교육,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담겨있는 벽화그리기, 버스승강장 모니터에 치매정보 송출서비스 등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주리 여수시보건소장(치매안심



센터장)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컨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